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지역 전망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필리핀 성장을 전망 5.3%로 유지 — page 1
- 필리핀 8월 제조업 생산 증가 — page 2
- 건설 업계, PCAB 지도부 지지 — page 3
- 민간 부문, 정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자금 지원 가능성 — page 3
- 전문가들 “부가가치세 폐지, 위기 촉발 우려” — page 4-5
- 에너지부(DOE) “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 번호 제한 운행제 제외” — page 5-6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6

지역 전망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필리핀 성장을 전망 5.3%로 유지

October 08,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세계은행은 화요일 발표한 2025년 10월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전망은 지난 4월 발표된 4.0%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5% 성장률에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경제권에서 경기 모멘텀이 완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6.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뒤를 몽골(5.9%)과 필리핀(5.3%)이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각각 4.8% 성장,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2.7%, **태국은 2%**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세계은행은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여전히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산업 생산은 견조하지만 기업 신뢰도는 낮다. 최근 관세 인상 이전에 수출이 가속화되었으나, 새로운 수출 주문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의 역설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이 새로운 구조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주로 생산성이 낮고 비공식적인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상향 이동의 기회가 제한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비교적 견조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은 ‘일자리의 역설(jobs paradox)’에 직면하고 있다,”고 카를로스 펠리페 하라미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가 말했다.

세계은행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약 2,5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으로 다시 빠질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이 중산층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포용적 성장 기반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라미요 부총재는 각국 정부에 대해 “경쟁과 기업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역동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이 지역이 국민들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보호주의

아디티야 마투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년 동안 수출 중심의 노동집약적 성장 모델이 10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이제 이 지역은 **무역 보호주의와 일자리 자동화라는 ‘이중의 도전(twin challenges)’**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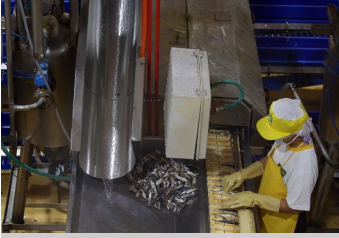
그는 기업 환경과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 “**기회와 역량 간의 선순환(virtuous cycle)**을 촉진함으로써,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while-regional-forecast-raised-world-bank-keeps-ph-growth-outlook-at-5-3/>



필리핀 8월 제조업 생산 증가

October 08, 2025 | Isa Jane D. Acabal | BusinessWorld



A worker is seen inside a manufacturing plant in Sto. Tomas, Batangas, March 1, 2023. — PHILIPPINE STAR/KRIZ JOHN ROSALES

필리핀 통계청(PSA)은 식품, 기계 및 장비, 기초 금속 부문의 생산 증가와 기초 금속 부문의 연간 감소세 둔화에 힘입어 8월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PSA의 최신 ‘선정 산업 월별 통합조사(MISSI)’ 예비 결과에 따르면, 생산량지수(VoPI)로 측정한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1.3% 성장률보다 소폭 높으며, 올해 7월의 1.8% 감소에서 반등한 수준이다.

이번 8월 수치는 올해 6월 1.6% 증가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이 평균 0.5% 성장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2.5%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8월 생산이 0.1% 증가해 7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으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생산량지수(VoPI)의 전년 대비 성장세가 빨라진 주된 요인은 식품 부문이었다. 식품 생산은 7월 11.4%에서 8월 20.2%로 급등하며 제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전기장비를 제외한 기계 및 장비 부문은 7월 3.1%에서 8월 6.7%로 상승했으며, 기초 금속 부문은 -26.8%에서 -9.6%로 연간 감소 폭이 완화됐다.

이 외에도 9개 산업 부문이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10개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다.

PSA는 전체 제조업 VoPI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상위 3개 산업 부문으로 **식품, 운송 장비(7월 9.5% → 8월 6.5%), 전기 장비(7월 21.2% → 8월 19.5%)**를 꼽았다.

한편, **산업 자원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은 **8월 77.3%**로, 수정된 7월의 77.2% 및 지난해 같은 달의 75.6%보다 소폭 상승했다.

비교적,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50.9에서 8월 50.8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하며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PMI는 향후 제조업 활동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생산에 앞서 기업들이 미리 구매하는 원자재 규모를 반영한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루벤 카를로 오. 아순시온 필리핀 유니언은행(Union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식품 생산의 확대는 제조업체들이 연말 연휴 기간의 강한 수요를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 구매력이 유지되었고, 이는 가공식품 수요를 지지했다”고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아순시온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미국의 대(對)필리핀 관세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 및 기계 생산 부문은 대부분 내수 중심이거나 관세 면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출은 크게 둔화되었고, 미국향(向) 선적도 감소했다”며 “관세의 본격적인 영향은 2025년 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의류나 신발 등 일부 업종이 압박을 받았지만, 이들 산업은 식품과 기계에 비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7일부터 필리핀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세르히오 R.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 필리핀수출업협회(Philexport)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시행에 앞서 생산을 미리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의 경우, 미국 관세를 앞두고 선(先)출하 물량을 늘리면서 식품 제조 부문이 ‘두 배 속도로’ 가동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순시온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말 식품 수요, 인프라 관련 기계 생산, 중앙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글로벌 교역 둔화, 기상 이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재정 지출이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대내외 역풍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생산이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ource: 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8/703589/phl-manufacturing-output-expands-in-august/

건설 업계, PCAB 지도부 지지

October 08, 2025 | Isa Jane D. Acabal | BusinessWorld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건설협회(PCA)는 건설 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필리핀건설업인증위원회(PCAB) 위원장으로서의 페리클레스 다카이(Pericles Dakay)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PCA는 성명에서 “다카이 위원장은 전문성과 공직 수행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의 리더십은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PCAB의 규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특징으로 한다며, 이는 ‘공사업 면허법(Republic Act 4566)’ 및 그 시행규칙(IRR)에 명시된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PCA는 “개혁적 리더로서 다카이 위원장은 PCAB 내 효율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여러 개혁을 주도해왔다”며, “이를 통해 인증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건설 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PCA는 “다카이 위원장의 노력은 건설 산업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건설 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PCA의 필수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PCA는 다카이 위원장이 상원 블루리본위원회(Senate Blue Ribbon Committee)의 각종 개혁 추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반(反)부패 운동, 예산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감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려는 그의 자세는 공직 윤리의 최고 기준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PCA는 이어 ** “이 같은 공헌을 바탕으로, 협회는 다카이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며, 건설 산업과 필리핀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08/2478236/construction-group-backs-pcab-leadership>



Laborers are seen working in a construction site along Road 10 in Navotas City on June 22, 2024.

The STAR / Ryan Baldemor

민간 부문, 정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자금 지원 가능성

October 07, 2025 | Isa Jane D. Acabal | BusinessWorld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화요일 말라카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헨리 R. 아구다(DICT 장관)는 분산형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디지털 원장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의 예산 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단계를 먼저 개발하고, 이후 대규모 시행을 위해 의회에 예산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부(DICT) 장관 아구다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예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2026년 예산안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026년 예산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CT는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구다 장관에 따르면 이미 두 곳의 기부자가 해당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들 기부금은 수용 전에 필수적인 심사 및 거버넌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자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공공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산업계와 민간 부문이 그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아구다는 말했다.

현재 제20대 의회에는 정부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나는 상원의 **1330호 법안(필리핀 국가예산 블록체인법, Philippine National Budget Blockchain Act)**이며, 다른 하나는 하원의 대응 법안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역시 공공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07/dict-private-sector-could-help-fund-use-of-blockchain-technology-to-ensure-transparency-in-government-budget/>

전문가들 “부가가치세 폐지, 위기 촉발 우려”

October 09.,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A woman shops for canned goods at a supermarket in Mandaluyong, Aug. 10, 2023.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경제학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VAT) 폐지가 재정 위기나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세청(BIR)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4,870억 페소를 징수한 가운데 나온 경고다.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면 나라가 재정 위기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며, 사회복지 및 주요 정부 사업 지출이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 강등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회장 칼릭토 V. 치키암코(Calixto V. Chikiamco)는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와의 바이버(Viber)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실행은 가능하지만, 미친 짓이다(Feasible but insane)” 라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VAT)는 필리핀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임대, 교환, 수입 등에 부과되는 12%의 세금이다. VAT 수입은 국세청(BIR) 전체 세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카비테(Cavite) 지역구의 프란시스코 A. 바르자가(Francisco A. Barzaga) 하원의원은 월요일,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속에서 부가가치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12% VAT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바르자가 의원은 세수 부족분을 ‘부유세(wealth tax)’ 부과와 함께 담배, 주류, 차량, 도박 등 사치 및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인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필로메노 S. 스타 아나 3세(Filomeno S. Sta. Ana III) 경제개혁행동(Action for Economic Reforms) 코디네이터는 바르자가 의원의 “믿기 어려운 제안”이 결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없애면 단순히 재정 위기(fiscal crisis)가 아니라, 경제 위기(economic crisis)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안컨설팅그룹(Asian Consulting Group)의 회장이자 CEO인 레이몬드 ‘몬’ 아브레아(Raymond ‘Mon’ Abrea)는 해당 제안을 “무모하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요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문제의 핵심은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누수(leakage)와 가짜 면세 혜택으로 인해 사라지는 수십억 페소의 세수 손실이다. 2023년에는 장애인 복지(PWD) 혜택의 남용만 해도 약 880억 페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브레아 회장은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불필요한 면세 조항을 폐지해 세원 확대, 남용 방지, 재정 안정성 확보를 달성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VAT율을 2% 인하할 경우 정부 세수가 연간 약 2,000억 페소 감소하는 반면, 가계는 연간 약 7,000페소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아브레아의 VAT율 10% 인하 제안은 바탕가스(Batangas) 지역구의 레안드로 안토니오 L. 레비스테(Leandro Antonio L. Leviste)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레비스테 의원은 현행 세제 체계를 “퇴행적(regressive)”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재단의 치키암코(Calixto V. Chikiamco) 회장은 “부가가치세율을 낮춘다 해도 부정적인 영향은 동일하며, 단지 그 정도가 약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P&A 그랜트 손튼(P&A Grant Thornton)의 세무 전문가 엘레노어 L. 로케(Eleanor L. Roque) 역시 부가가치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VAT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회가 납세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고 이를 아세안(ASEAN) 역내 국가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바이버 메시지에서 밝혔다.

현재 필리핀의 부가가치세율 12%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가 12%로 동일하지만, 캄보디아·말레이시아·베트남·라오스는 10%, 싱가포르 9%, 태국은 7% 수준이다.

한편, 아이본재단(IBON Foundation)의 사무총장 호세 엔리케 ‘썬니’ A. 아프리카(Jose Enrique “Sonny” A. Africa)는 부가가치세 폐지가 “서민들이 지고 있는 불균형한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 및 대기업, 부유 가계에 대한 강력한 부유세와 소득세 인상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조세 체계가 훨씬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 page 5]

전문가들 “부가가치세 폐지, 위기 촉발 우려”

[Cont. from page 4]

호세 엔리케 ‘씨니’ A. 아프리카(Jose Enrique “Sonny” A. Africa) 아이본재단(IBON Foundation) 사무총장은 ‘억만장자 부유세(billionaire wealth tax)’를 도입하면 연간 5,000억~6,000억 페소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VAT) 폐지로 인한 재정 공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폐지나 개정 관련 제안은 2005년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랄프 G. 렉토(Ralph G. Recto) 재무장관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BIR)은 올해 8월 말 기준 4,871억 2,000만 페소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전년 동기(4,474억 2,000만 페소) 대비 8.87%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8월 목표치(4,952억 6,000만 페소)에 1.64% 미달했다.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전체 세수(2조 1,400억 페소)의 22.77%를 차지했다.

BIR은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에 보낸 이메일 자료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농업 분야의 정부 투자 확대가 올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예산지출 및 재원 보고서(Budget of Expenditures and Sources of Financing)에 따르면, BIR은 올해 7,968억 7,000만 페소(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1조 3,000억 페소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Bureau of Customs)은 2025년 수입 부가가치세(VAT on imports)로 5,895억 페소, 2028년에는 6,957억 7,000만 페소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VAT base) 확대와 조세 행정(tax administration) 개선을 통해 세수 증대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담당 국장 자페르 무스타파오글루(Zafer Mustafaoglu)는 “필리핀은 납세 준수율을 높이고 면세 및 특혜세율을 축소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9/703885/scrapping-vat-may-trigger-crisis-analyst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9/703885/scrapping-vat-may-trigger-crisis-analysts/)

에너지부(DOE) “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 번호 제한 운행제 제외”

October 07, 2025 | Gabriell Christel Galang | Manila Bulletin

에너지부(DOE)는 10월 8일(수요일) 성명을 통해 모든 전기차(EV)가 번호 제한 운행제(number coding scheme)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단속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해명이다.

DOE는 성명에서 「공화국법 제11697호」, 즉 전기차 산업 발전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EVIDA) 제25조를 근거로 들며, 해당 법 조항이 전기차의 번호 제한 운행제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B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경형 전기차(LEV) 등 모든 유형의 전기차가 통합 차량 통행량 감축 프로그램(Unified Vehicular Volume Reduction Program, UVVRP), 즉 번호 제한 운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Photos by John Louie Abrina I MB)

EVIDA 법에 따른 이 면제 조치는 친환경 교통수단(green 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현재 2030년까지 유효하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이 시행하는 통합 차량 통행량 감축 프로그램(Uniform Vehicular Volume Reduction Program, UVVRP)은 도심의 교통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평일에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요일은 1과 2, 화요일은 3과 4, 수요일은 5와 6, 목요일은 7과 8, 금요일은 9와 0으로 끝나는 번호판의 차량이 운행이 금지된다.

이 이슈는 지난 10월 5일 일요일, MMDA가 제도입한 비접촉 단속 정책(No-Contact Apprehension Policy, NCAP) 시스템이 한 전기차(EV)를 번호 제한 위반 차량으로 잘못 식별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임을 나타내는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오류는 대중의 혼란을 일으켰고 NCAP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자가 이 단속에 대해 항의하자 MMDA는 즉시 해당 위반 조치를 철회했으나, 에너지부(DOE)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DOE는 10월 7일 화요일,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전기차 산업 발전법(EVIDA)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DOE는 성명을 통해 “에너지부는 EVIDA 법의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6]

에너지부(DOE) “전기차 ·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차량, 번호 제한 운행제 제외”

[Cont. from page 5]

이번 논의에는 교통국(LTO),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 필리핀 국가경찰 고속도로 순찰대(PNP-HPG), 내무지방정부부(DILG),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LGU)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부(DOE)는 최근 전기차(EV) 산업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지난달 전기차 인정 지침(EV Recognition Guidelines)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2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산업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전기차 충전 모니터링 양식(EV Charge Monitoring Form)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홍보용이 아닌 전기차는 임시 인증서(Provisional Certificate) 또는 비상업용 인증서(Non-Marketing Certificate)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월 1일 기준으로, DOE는 약 780대의 배터리 전기차(BEV), 113대의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99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그리고 88대의 경량 전기차(LEV)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mb.com.ph/2025/10/08/doe-no-number-coding-for-electric-hybrid-plug-in-vehicles>

[UPCOMING EVENT]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오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할 후원사(테이블 후원 또는 경품 후원)를 초대합니다.

이번 축제 행사는 한·필리핀 양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성탄 시즌을 함께 축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Chi / Ms. Sang

☎ +632-8885-7342

0917-801-5920 | 0915-888-7296

(두 번호 모두 Viber 및 KakaoTalk 사용 가능)

email info@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